

마 빌립보서의 기쁨: 복음 안에서의 교제

성경말씀: 빌1:1-6

오늘부터 빌립보서 강해, 바울 서신 중에서 에베소서와 함께 가장 심오한 진리 내포, 짧지만 외울 구절, 적용해야 할 구절이 심히 많다. 서신(편지)이므로 기록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
오늘은 전체 설명

<라이프성경사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의 4대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인 본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저자의 따뜻한 인간미와 풍성하고 깊이 있는 내면의 신앙심으로 가장 잘 승화시킨 책으로 유명하다. 옥중에서 기록된 것으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감사와 찬양, 환희의 기쁨이 넘치게 표현되고 있는 것도 본서신의 장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서신은 그리스도와의 일치와 연합을 이룬 성도들이 내면의 신앙 인격을 고양시킬 수 있는 좋은 지침서라 할 것이다.

본서신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다. 이는 본서신이 이를 직접 증언한다(1:1).

기록 장소와 시기: 본 서신 역시 다른 옥중서신과 마찬가지로 로마 감옥에 있던 2년 기간 중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본서의 기록 시기는 옥중 생활 말기인 62-63년경

빌립보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고난, 죽음에 관한 기사는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다. 하지만 이런 주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죽음을 신학적으로 가장 잘 해설한 것이 본서신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시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시고, 심지어는 보통 인간들보다 더 낮고 비천한 삶을 사셨다.” 그 분명한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다. 이는 당시 보통 사람들에게서도 흔치 않는 비참한 죽음이다. 이를 통해 바울은 주님의 겸손과 희생 정신을 가르친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왕좌 오른쪽에 앉게 된 이면에는 이런 주님의 희생과 겸손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바울 역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옥중에서도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위로하고 권면하며 주안에서 기뻐하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주님의 겸손을 본받으라고 당부한다(2:5). 낮아지지 않고 높아질 수 없으며,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다는 본서신의 핵심 교훈이야말로 하늘 끝까지 높아지려다 수없이 실패하는 현대인들이 다시 한 번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라 하겠다.

왜 이것을 선택하였나? 일단 서신서를 더 강해하고 싶었다. 나의 책무, 특별히 나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산다. 바울을 보라.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4:4,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쁨이 나오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켄달, 파이퍼)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핵심 본질, “어떻게 사는가?”

또한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매우 많다. 외우고 살면 너무 좋은 구절

1:21, 23, 27; 2:3-4; 5-11; 12-13; 3:7-9, 13-14; 20; 4:4, 6-7, 8, 11-13

오용되는 구절도 많다. 4:4의 경우처럼

빌립보서 안에는 적어도 16번이나 기뻐하라는 말이 나온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굉장히 심오하다. 짧지만 강해할 것이 매우 많다. 위어스비, preaching the word 주석 등 중심으로 문맥에 맞게 우리의 필요대로 강해하려 한다. 나와 내 아내 그리고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빌립보서 이해를 위한 배경: 사도행전 15-16장

1차 선교 여행, 안디옥 교회로 돌아옴, 할례 문제, 유대인 율법 규정 문제, 예루살렘 회의,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규정 준수 불필요, 그 뒤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를 택한 뒤 2차 여행(행15:36-40),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데리고 감(행16:1-5), 바울의 계획: 이전의 도시들을 다니며 성도들을 확고하게 세워야겠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음, 환상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을 봄(행16:6-10). 그래서 유럽으로 들어감. 이때에 누가가 더해짐(16:10).

이로써 유럽에 공식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함

빌립보는 당시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 국제 도로인 에그나티아 도로(Via Egnatia)의 길목에

위치한 교통, 전략 요충지이며, 중근동의 소(小) 로마로 불렸다. 주전 4세기경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이 세움, 터키에서 그리스로 들어가는 길목의 보스푸르스 해협, 이스탄불, 거기서 서쪽으로 300km

바울은 어디서나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 선포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을 세울 만큼의 유대인들이 되지 않음,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들 모임 발견, 두아디라 시 출신의 자주 장사 루디아에게 복음 선포, 루디아 회심(11-15)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소녀를 고침, 감옥에 갇힘.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함, 지진이 나고 그 뒤 빌립보 감옥의 간수 회심(16:30-31),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 교회 형성, 아마도 이때에 즉 주후 50년경에 빌립보 교회 형성됨(행16:12-40). 아마도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바울에게는 가장 의미 깊은 교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이 생각남

그래서 바울도 이들을 늘 생각하고 기도함(1:3-5), 복음 안에서 교제

빌립보서의 중요 단어, 교제 3번(1:5; 2:1; 3:10), 단순한 사교가 아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데는 바울과 그곳 성도들의 끈끈한 교감, 사귄이 있었다.

바울의 상태: 로마 감옥, 성도들의 사랑의 선물((4:18, 돈), 에바브로디도가 전달자, 그런데 전달 과정에서 그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살아남(2:25-30), 그가 회복되자 그를 통해 기쁨의 편지를 빌립보에 보냄.

우선 감사 표시, 디모테를 보내려는 의향 표현(2:19-20), 유대주의자들 경고, 견고하게 서라.

이 모든 것의 근거: 복음 안에서의 교제(5), 친밀함

5절의 첫날부터의 의미: 유럽의 첫 번째 교회, 성령님의 인도

1절을 보면 다른 서신과는 달리 사도라는 말이 빠져 있다. 사도는 권위의 말, 이 말을 쓰지 않음

그리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섬기는 자로 표현함, 그리고 디모테를 언급하여 그의 권위를 세움 '종'이라는 말은 주인에게 매인 종을 의미, 즉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 강조, 교회 안에 분열이 있음(4:2-3)

특별히 일을 하다가 자매들 사이에 분열

바울의 강조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1:27). 개인의 삶, 바울의 권고(4:8)

교회로 모일 때의 삶: 한 영과 한마음

구원받아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과 지역 교회는 조금 다르다.

지역 교회는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 진술문이 있다. 교회의 철학, 문화, 목적이 다르다.

이렇게 같은 영으로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한마음이 필요하다. 한 생각이 필요하다.

그 한마음, 한 생각이 무엇이나, 그리스도의 마음(생각): 2장에서 충분히 설명한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들의 구원을 일하여 밖으로 드러내야 한다(2:12-13).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사는 바로 그리스도, 37회

즉 빌립보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가장 잘 보여 준다. 즉 그리스도 중심의 서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복음의 교제 안에 거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기쁨(히12:2)

1:4, 18, 25, 2:2, 17-18, 28-29, 3:1, 4:4, 10 등의 기쁨, 기뻐하라.

여기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특별히 고통과 고난 속에서 흘러넘치는 기쁨

21세기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기쁨

이러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빌립보서 상세 설명 필요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성령 충만으로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의 말씀(요:16-32-33)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마28:20).

마린 목사와 성도의 복된 관계

성경말씀: 빌1:1-10

지난주부터 빌립보서 강해 시작, 바울의 옥중 서신, 유언, 다양한 주제, 하나도 뺄 것이 없다. 오늘은 <목사와 성도의 복된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 및 자세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목사의 직무와 자격

구약시대 가정, 국가, 이스라엘, 신약시대 교회

이런 기관들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 집단이 구성되면 리더와 폴로우어가 반드시 생긴다.

성경은 이것을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목사와 집사를 주심(1:1), 빌립보서는 바울의 목회자적 측면에서 이야기

오늘은 주로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 그러나 모든 리더들과 따르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 딤후3장, 딤후1장은 감독에 대해 이야기한다.

감독, 장로, 목사 다 동일한 직무 수행자를 나타내는 말이다. 감독은 로마, 장로는 유대, 목사는 기능 무어라 부르든지 다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의 자격 조건은 딤후 3장

이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행20:28; 뱀전5:2-3)

단수 목사, 복수 목사, 목사가 있는 교회, 없는 교회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서 이미 교리적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

빌립보서 1장 1-10절은 목사와 성도의 관계, 목사의 자세를 심히 잘 보여 준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성도들이 모금을 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위로함.

그러자 사도는 10여 년 전의 과거를 기억하며 편지

편지 서두를 보면 목회자의 심정이 담겨 있다.

1. 성도들로 인해 그들을 기억하고 감사하였다(3). 나의 경우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얼굴과 이름이 매칭이 되지 않는다. 노력하고 있다. 감사의 이유: 이들 구원, 수적 증가, 성장 감사, 아이들 성장 감사
오늘 나는 이 자리를 빌어 지난 10년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목사로서의 책무를 겨우 최소한으로 하는데도 믿고 도와주셔서 감사 또한 신실하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 목사가 재정 걱정하지 않고 주의 일 하게 해 준 것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땅에서의 기쁨과 하늘에서의 기쁨으로 서창 캠퍼스로 이사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모든 것이 너무 편안하고 감사하다.

2.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간구(4), 목사의 당연한 직무,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지체들 가정

3. 이 모든 것의 근거는 복음이다(5). 복음(롬1:16),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고전15:3-4).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에 동의하며 교제(파트너), 단순히 커피 마시는 교제가 아니다. 이런 것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의 파트너, 동일한 성경, 동일한 복음, 동일한 목표

그것도 첫날부터 지금까지, 첫날 가운데는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포함됨, 대단히 귀중한 말씀

4. 바울의 확신: 선한 씨는 바울이 뿌렸지만 그 일 자체는 그리스도의 일(6),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선한 일은 복음의 교제, 파트너가 된 것, 루디아, 간수 등 미약 그러나 큰일로 발전, 여기까지
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였다. 구원, 그 이후 교회, 풍성한 열매
목회자의 자세: 겸손.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5. 너희는 내 마음에 있다(7). 그 이유 로마 감옥의 고통을 나눔, 목사의 고통을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사랑과 기도로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내 뒤에 와서 목회할 사람들, 이끌 사람들
복음 변호 확증에 같이 참여, 우리 교회의 일: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구원, 바른 교리, 바른 교회, 바른 성화, 바른 사회, 같이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개인의 보상, 여기에는

교회로 같이 하며 섬긴 것에 대한 보상도 나누리라 믿음

6. 그 결과 그들을 그리워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창자라는 뜻, 사랑 표현, 삽자가의 사랑으로

바울의 기도

부모는 항상 자녀들 위해 기도, 나도 마찬가지

바울의 말: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전4:15-16). 만 명의 스승, 잠시 잠깐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사람
차이는 무엇인가?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관계

실제 부모/자식은 살과 피를 나눈 관계, 바울은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를 부모 자식으로 표현함
부모의 심정(고후12:14-16),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목사

이것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보답하는 빌립보 성도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잘되기를 바란다. 목사도 마찬가지

1.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함: 즉 성장하기를 기도함,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그런데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며 이해하는 사랑이 증대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증대되어야 한다. 교리가 확실해져야 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라야 한다.

어떻게 가능한가? 진리의 영, 구분, 분별할 줄 안다.

어린아이: 개, 고양이, 쥐, 구분이 안 된다. 차도 구분이 안 된다. 성장하면서 구분도 하고 위험도 알게 된다. 길 건너며 앞뒤 좌우 살펴보고 간다.

2. 고귀한 성품의 소유자(10): 그리스도인의 목표: 그리스도의 성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뛰어난 것들을 시험해 본다. 자동차 시험장, 그런지 안 그런지
확실히 좋은 것들을 알게 되면 추구한다(4:8). 그 결과 성실한 사람, 남을 실족시키지 않는 사람
정직한 사람,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휴거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것 역시 모든 부모가 바라는 것 아닌가?

3. 그 결과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 열매를 일로만 생각하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갈5:22-23), 성품의 변화
그 다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일

그 일의 특징: 소리가 없다. 어떤 나무도 소리를 내며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광

우리 주님의 말씀(마5:13-16): 이것이 모든 성도의 삶의 목표

4. 이런 일은 억압으로 불가능하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좋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좋아야 한다.
그러면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하게 된다.

그러면 만족감과 행복감이 생긴다. 이것이 넘쳐나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불가능, 그래서 복음 안에서 교제가 중요하다.

그 이후에 목사의 양육을 잘 받아야 한다. 그래서 튼튼한 아이로 성장해야 한다.

구분하고 분별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아이, 그 안에서 사랑이 풍성한 아이, 이것 우리 교회의 목표

목사의 소원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시는 것

너희가 끝까지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 고후1:14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것, 그러므로 같은 교회를 하면서 싸우면 안 된다.

바울과 바나바도 큰 다툼, 있을 수 있다. 심각한 다툼이 있으면 분리해야 한다.

나의 목표는 1:24,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가르치기만 한다.

여러분이 판단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서야 한다. 이것이 신약 교회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할 길
교회와 목사를 의지하되 동시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부모 자식처럼 부활의 날에 서로 기쁨으로 만나야 한다.

막 고난과 핍박의 아이러니: 오히려 복이 된다

성경말씀: 빌1:12-18

빌립보서 바울의 옥중 서신, 로마 감옥에서의 유언, 다양한 주제, 하나도 뻔 것이 없다.
지난주 <목사와 성도의 복된 관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함, 목사는 성도 중에서 나온
목사는 열심히 꼴을 먹여야 한다. 나머지는 주님의 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서로의 기쁨이 되자.

그리스도인의 아이러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리스도는 하나도 나쁜 것이 없다. 100% 선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좋은 사람이다. 남에게 호의를 베풀고 호의를 입는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미워하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 바울의 확신: 모든 사람이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의인, 악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바리새인으로 행위 의인이 되려 하였다. 남을 정죄하였다.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위치를 깨달음, 먼지 하나만도 못한 더러운 죄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그 당시 이방인 세상은 마귀에 의해 눈이 가려져서 온 천지가 우상, 고후4:3-6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생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선포(죽음과 부활과 재림)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배로, 걸어서, 산과 바다를 넘으면서, 아마도 2만킬로미터 이상
얼마나 좋은 일인가? 착한 일인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종교를 가지려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 잘살고 싶다. 만수무강, 변영신학, 샤머니즘

예수님을 이런 목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꿈을 깨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아이러니가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후4:8-12).

바울의 예: 고후11:23-27 이렇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사람이 있는가? 고후1:8-9

고후6:4-10, 딤후3:10-12, 그는 교회 안에서의 영웅일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의 영웅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붙잡혀서 결국 원치 않는 방식으로 로마행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좌절이 되었을까?

그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말로가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 좋지 않을까?

더욱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왜 카이사르에게 호소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가?”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 뻔히
알면서 왜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혔지?”, “너무 확신이 세, 고집에 세, 그게 문제야?” “결국
감옥에 갇혔으니 하나님의 일도 하지 못하잖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선물에 대해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 뒤 자기의 심정을 기술함
여기에 위대한 사람의 고백이 있다. 인생을 살면서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원치 않는 고생, 고난
조금이나마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이기며 앞으로 나아가자. < >

고난과 핍박이 복음 확장의 기회(12-14)

12절 설명: 그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이 복음 확장의 기회, furtherance 복음이 멀리 진출됨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달리 그는 전혀 주눅이 들거나 낙심하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소망: 복음, 빌립보서 안에서만 복음이 9차례

복음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매장, 그리고 부활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달된다면 나는 전혀 낙심하지 않는다(롬1:16-17).

13절: 그의 감옥 결박이 궁궐 안과 다른 모든 곳에 알려짐,

궁궐 안에는 왕족, 귀족 그리고 9000여 명의 정예 군사, 온갖 심사를 통해 선발된 자들

이 군사들은 궁궐에 갇혀 있는 죄수들 보호, 감시, 당연히 바울과 함께 지내게 됨

자연스럽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접함, 핵심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처형, 부활

그 결과 카이사르의 집안사람들도 믿게 됨(4:22), 상상도 하지 못한 일

바울의 소원(롬1:10-13), 가고자 하였는데 마귀가 가로막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로 죄수가 되어

거기에 감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킴, 특별히 고관들에게 변화를 일으킴

14절: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더욱 더 말씀 선포

두려움을 갖던 성도들이 복음이 고위층에 전달되는 것을 보고 담대하게 복음 선포

복음이 선한 의도와 악한 의도에 의해 선포됨(15-18)

로마 교회의 다수는 담대하게 복음 선포, 그런데 소수는 악한 의도로 복음 선포(15)

그들은 시기와 다름으로 바울을 미워함, 시기와 다름은 육신의 열매, 다른 사람이 잘되면 배 아파하는

것, 우리는 어떤가? 다른 성도들이 잘되면 기뻐해야 한다. 교회 안에도 시기하는 자들이 있다.

바울이 로마로 오게 되자 아마도 지도자들 가운데 시기하는 자들이 생겼을 것이다.

바울의 경력과 자기들의 경력 비교, 비교가 안 됨, 성도들이 그에게 더 신경을 씀

요삼의 디오드레베(9-10), 그들은 그에게 고통을 주려고 복음 선포(16)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아니다. 구원받았다.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런데 끝에 가면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한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나를 통해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아멘이 되어야 한다.

이 교회를 통해서든, 다른 교회를 통해서든, 교단도 마찬가지

꼭 자기를 통해서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영역을 갖고 타인 접근 금지

이런 사람을 소인배라고 한다. 교회에 특히 많다.

“내가 더 많이 구원받게 해서 바울을 눌러야겠다. 그러면 그의 코가 납작해지겠지.” 시기, 악한 의도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 더 잘하는 사람이 오면 잘할 수 있게 길을 터 주어야 한다.

어떻게 바울이 나왔는가? 그의 선배인 바나바가 그를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데려와 소개

그 뒤로 그는 바울에게 밀렸다. 행15 이후에는 안 나옴, 그래도 그는 행복한 사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져갈 하나님의 그릇

우리는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나를 통해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그리스도만 선포되면 OK

그러나 대다수는 선한 의도로 복음 선포(17): 이들은 바울이 복음 확증하고 변호하기 위한 사명을 가진

줄을 알았다. 그래서 더욱 사랑하였다. 목회자와 선교사, 리더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만 선포되면 만사 OK

바울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를 지님,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경륜을 잘 알고 있었다. 풍성한 지식

그럼에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의 확신을 보라(18)

예수님만 전파되면 내 고통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참아낼 수 있다.

우리의 안락감, 상한 심령, 명성의 쇠퇴, 사람들의 오해 등은 복음 선포에 비하면 덜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 교회의 목표 역시 이와 같아야 한다.

언제나 복음 중심,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하도록 세워 주기

많은 교회들이 처음에는 다 복음 중심으로 시작됨

시간이 흘러가면서 복음은 쇠퇴하고 교회와 교회 설립 목사 영웅화, 타락: 많은 대형 교회들의 문제

바울의 조언: 복음이 최고의 가치이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가져야 한다.

복음이 들어가면 무지 타파, 인간 개조, 여성 권리 신장, 약자 보호, 올바른 정치관, 국가의 번영

한국의 문제: 복음이 아니라 번영 신학, 이것은 사며니즘, 복음과 교회가 약화됨

결국 일 안하고 먹고살려는 사회주의 병폐, 공산주의자와의 타협, 교황 초청

교회가 바로 서야 한다. 복음이 바로 전달되어야 한다.

바르게 구원받아 진리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 늘어나야만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인생에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다. 감정이 상하고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힘들 때가 있다. 외부의 공격, 내부의 갈등

지난 2년 동안 한 교단의 이단 대책 위원회 소환 조사, “나는 이단이 아니라 이단성을 지난 자다.”

다른 점이 무엇인가? 나는 성경의 영감과 보존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이 있다.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 어떻게 아는가? 성경의 보존 확증, 지난 400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 빠진

데가 하나도 없다. 모든 교단의 신학, 교리 선언의 근간, 오대양 육대주 복음 선포

그래서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든 청교도들처럼 성경의 완벽한 보존을 믿으며 글 손에 있던 그 번역된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많은 조롱과 멸시, 그러나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 전달됨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만 전달되면 I am OK.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는 자처럼 때여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럴 때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18절을 암송하자.

마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아이러니

성경말씀: 빌1:19-30

성도의 삶에서는 이상한 일이 생긴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데 전화위복,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선포된다. 궁궐에까지 전달된다. 하나님의 신비, 인생의 아이러니, 오늘 은 바울의 또 다른 아이러니,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아이러니>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기도의 필요성

그는 18절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만 선포되면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고 고백함
그리고는 19절, 카이사르가 어떻게 하든지, 대적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최종적인 구출, 구원을 확신한다 (19). 답후4:18

여기의 이것, 모욕, 치욕, 감옥 구속, 겉치레로 전하는 것, 신실하게 전하는 것
우리 역시 어려움을 당할 때 최종적인 구출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 인생이 끝이 아니다.
이런 확신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바울도 사람이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다(19).

성도들의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져다준다(19).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성도는 성령님이 내주해 계시는 존재, 성령님이 떠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성령님의 파워가 더 필요할 때가 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라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4:8, 31; 7:55; 13:9, 52 등). 사도들은 계속해서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파워를 받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그는 감옥에서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감옥,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힘을 얻었다.

나는 기도를 많이 못하는 사람, 지난 10년 동안 교회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었다. 감사한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병 고침을 받았다. 필요할 때에 반드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결국 본인 혹은 타인의 구원으로 바뀐다(19).

바울의 유일한 소망

최종 승리를 확신하므로 그는 예수님만을 높여야 한다는 확신을 더 확고히 갖게 되었다(20).
30년 사역에서 그가 간절히 원하며 기대한 것, 확신을 가지고 바란 것, 어떤 일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외친 것,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높이하고자 한다(20). 위대한 말이다. 고린도후서를 읽으면 그의 심정을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높인다는 말: magnify, 원래 뜻, 확대한다. 돋보기, magnifying glass

위대하게 만든다. 존귀하게 만든다. 영화롭게 한다. 높인다.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를 크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늘의 별을 가깝게 크게 보려면 망원경 사용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망원경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깝게 크게 보이게 할 수 있다.

바울의 말: 내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연출되는 연극장과 같다. 그분의 존귀, 위대함, 파워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할 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특히 우리의 미디어 사역 오직 그리스도를 높임
현시대 설교자 가운데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하는 분: 존 파이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성도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하나님의 기쁨, 이것이 높이는 것
바울의 위대함: 수없이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한 믿음의 베테랑, 자기 앞에 놓인 핍박을 알지 못한다.
다만 확실한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내게 무슨 일이 생겨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된다. 그러면 OK

21절: 이 모든 것 요약,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 이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고후5:17), 그래서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했는가? 진리로 인해 목표가 뚜렷하다. 조롱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다.

바울의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에 참여함 의미(갈2:20).

사는 것이 그리스도: 무조건 항상 안락한 삶(번영)을 말하지 않는다. 진리를 위해 분투하는 고통과

고난의 삶, 앞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고난을 맞이하는 삶
그러므로 그의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 사역, 권능,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
그 결과 죽는 것이 이득이다. 모든 것이 변해 그리스도처럼 된다(요일3:2). 빌3:9
현재의 성도: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나 여전히 죄인

그러나 죽으면 이 전쟁이 끝나고 완벽한 의인으로 선다. 다시는 슬픔, 아픔이 없다(계21:4).
모든 일은 끝이 좋아야 한다. 유종의 미,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이다.

죽는 것이 이득이 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굉장한 것
내게는 사는 것이 잘 먹고 저축하고 골프하고 여행하고 TV 보고 쇼핑하고 음행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
이러면 결국 죽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 된다.

조지 버나드 쇼: 1856-1950, 좌파 문학가, 노벨문학상 수상, 95세 장수

묘비: 내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지.

엘리자베스 여왕, 부귀영화, 죽는 순간 “아이고 맙소사. 끝났네. 끝이 났어.”

우리가 죽는 날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죽는 것이 이득이다!”

바울의 성도 사랑(22-24)

바울의 고민: 죽는 것은 영화롭게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사는 것은 영화롭게 열매를 맺는 것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좋은지 택하지 못하겠다(22).

그런데 죽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좋다(23). 죽는 것은 떠나는 것이다. 즉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죽으면 곧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중간 단계 거치는 것이 아니다(고후5:7).

그는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표현했다. 그 이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또한 그는 실제로 그것이 좋음을 체험하였다(고후12:4)

그리스도인의 아이러니;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바울의 고백(딤후4:6-8)

그러나 너희를 생각하면 남아서 수고하는 것이 필요하다(25)

그래서 그는 전 삶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매진하였다(26).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

그래서 그는 빌2:4를 쓸 수 있었다. 고후6장의 희극과 비극을 감내하였다.

죽는 것이 좋은데도 성도들을 바라보면 남아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나의 삶: 지난 27년 동안 성경, 지난 10년 동안 교회, 지나 3년 이상 성경 교정, 힘든 일

여러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주님이 함께하시면 나는 한국말 하는 사람들에게 최상의 성경을 주고

갈 것이다. 최상의 교회를 주고 갈 것이다. 다 내 것이 아니다. 비천하게 태어났으나 너무나

귀한 것 많니 누렸다. 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할 것, 우리 교회가 할 것, 내 뒤의 사람들이 할 것,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의 부탁(27-30)

1.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27).

너희는 왕의 아들들이다. 달리 생각하고 달리 말하고 달리 행동해야 한다. 왕가의 아이들

이것이 복음을 지닌 자들의 합당한 삶이다.

2. 믿으면 고난당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29-30). 그래서 동일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반대자들을 대적하는 싸움,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

결론

1.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 기도, 특별히 사역자를 위해 기도

2.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

3.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4.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ㄹ 교회 분열 해결책: 그리스도의 생각 품기

성경말씀: 빌2:1-11

지난주,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아니러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곧 죽을지도 모르지만 아무 염려 없다. 성도들의 기도, 성령님의 공급, 사는 것이 그리스도, 죽는 것이 이득, 실제로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는 사는 것이 낫다.

2장에는 바울의 염려와 권고: 에바브라디도, 빌립보 사람들 선물, 나쁜 소식, 교회에 분열이 있다. 교회의 어려움: 외부의 적(빌3:1-3), 내부의 분열(4:2-3)

교회는 사람들, 그러므로 항상 문제가 있다. 고린도 교회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파 분열은 성숙하지 못함의 표시(고전3:1), 육신적인 사람들의 표시, 영적 베이비

50년 이상 교회 다니며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많이 보았다. 가장 참기 힘든 것: 교회 내부의 싸움 서로 분열되어 오전에 한 그룹, 오후에 다른 그룹, 피켓을 들고 시위 미국 교회; 건축 후 복도 본당에 카펫 까는 것(어떤 색)

검색 엔진 교회 분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대형 교회들의 내부 갈등, SNS로 확산됨

1. 가십, 2. 교회일 비밀리에 수행, 3. 교회 권력을 쟁취하려는 자들의 공략, 4. 자기 스타일 고집, 5. 문제 덮기, 6. 극도의 비난(SNS), 7. 교회 치리 부족, 8.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편애, 9. 목사 주변의 파워 그룹, 10. 교회 세습, 11. 기도 부족,

요약: 1. 교만, 2. 오해(교회, 교리), 3. 우상 숭배(자리), 4. 탐욕(돈, 여자)

거의 모든 교회가 분열의 요인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목사와 성도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늘 염두에 두고 실제 상황에 잘 대처하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모여도 우리는 인간이다.

<교회 분열 해결책: 그리스도의 생각 품기>, 성경적으로 해결하기

바울의 권면(1-4)

1장 27절, 복음에 합당한 행실, 한마음, 너희 안에 분열, 안 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는 방법: 두 가지, (1) 성도들이 자기를 살펴보고 자발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영혼의 자유), (2) 목사나 외부의 힘에 의해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자유 없이 하나), 좋은 것 같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는다. 바울은 전자의 방법을 택하여 부드럽게 권면한다.

1.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라(1).

- a. 그리스도로 인한 안위, 구원받아 천국이 확실한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보상이 있는가?
- b. 사랑의 위로, 나로 인해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 위로, 병약자 위로
- c. 성령의 교제, 영적 교통(성경 탐구, 묵상, 기도)
- d. 인정이나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2. 이런 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인, 그러므로 ‘...있거든’은 다른 말로 하면 ‘확실한 신자라면’이라는 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한다. 구원받기 전과 후의 변화

3.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은 결코 다른 의견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낼 수 있다. 그런데 내 것을 접는 일도 필요하다. 서창 캠퍼스, 땅 구매, 건축 규모, 목사는 작게, 성도들은 크게, 그래서 싸우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아마 반대가 되었으면 건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어쨌든 평안하게 건축함, 목사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식사할 때도 줄 서고. 여행가서도 대접받지 않고, 그냥 할 일 할뿐이다.

4. 바울의 간청(2): 이것이 목회자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나에게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나는 너희가 다투지 않고 교회를 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내 기쁨

5. 왜 문제가 생기느냐?(3)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한다. 이유: 자기를 낮추지 않기 때문에.

나의 철학: 교회의 일을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내 영광이 되면 안 된다.

6. 그러려면 나를 알아야 한다(롬12:3; 고전4:7)

7. 그러면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게 된다(4).

8. 이 일의 대표적인 인물: 예수 그리스도(5-11), 자기(12-18), 디모테(19-24), 에바브로디도

예수님의 자기 비움

빌2:5-11은 교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성육신, 십자가 죽음, 부활, 영화가 다 들어 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의 순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 요약

1.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각을 가지라(5). 그분의 태도, 동기가 이기적이면 이기적인 결과
2.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는 분, 우리가 말하는 삼각형, 네모 등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 팔, 형체를 말하지 않는다. 의인화를 통한 하나님의 속성 묘사, 형체: 내부 본성이 밖으로 표현된 것,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다(요1:1).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으셨다. 강탈은 내 것이 아니기에 빼앗는 것 삼위일체,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면 안 된다. 세 인격체가 권능, 권위, 속성, 아름다움, 거룩함 등에서 동등하다. 세 분이 다 하나님, 한 하나님
2.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다. 종의 형체, 사람들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한다. 과거에 대언자들을 보내셨다. 이제는 직접 오셨다(히1:1). 사람의 사정을 듣고 직접 말하기 위해, 마귀와의 전쟁이 있다. 마귀가 죽음의 권세, 그래서 천사들의 본성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 종의 형체, 누추한 것들, 베들레헴 마구간,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 많은 지혜와 지식, 권능, 머리 둘 곳이 없다. 이유: 자기가 아니라 남을 돌보려고(4).
3. 자기의 모든 특권을 남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것이 크리스천 정신, 루시퍼를 보라, 아담을 보라. 왜 타락하는가? 자기를 세우려고,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하나님과 다투려고
4.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고 얻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다(요13),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감사한 일: 나대는 사람이 거의 없다. 모두 조용히 섬긴다. 교회 리더들이 다 그렇다. 이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이 정신을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한다.
5. 남을 섬기는 것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 교회 일이나 세상일이나 마찬가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함, 그러므로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함,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자.
6. 이 모든 것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 교회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항상 이 생각으로 점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분의 뜻을 이루는가?
7. 그 결과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신다. 신약 성경의 진급 법칙: 십자가 다음에 영광
 - a. 높이 올리신다: 사람은 그분을 최저 상태로 밀어놓았다. 그래서 그분의 혼은 땅의 지옥 부분에 가셨다(엡4).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려 위로 데리고 가신다.
 - b.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 주(11), 그래서 우주 공간 모든 곳의 모든 창조물이 그분의 이름에 굴복하게 하심(10),
 - c.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심
8.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 십자가와 부활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 a.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한다.
9. 남의 일을 돌볼 때 이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교회의 화평, 한마음, 모두를 기쁘게 하는 일
10.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다려야 한다(벧전5:5-6). 남이 알아줄 때까지 이것이 없이는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없다.
11. 요셉은 이집트에서 13년 고생, 총독, 다윗도 13년 고생, 왕, 다니엘도 포로 고생, 총독

결론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가? 전도, 선교, 교육, 외적 섬김, 다 외적 모양

그런데 목사 눈에는 다툼이 없는 교회: 2:3-4를 이루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일, 외적 모양은 작아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바울의 권면(2)

▶ 그리스도인의 워크아웃과 하나님의 워크인

성경말씀: 빌2:12-18

지난주, 빌립보 교회에도 분열이 있었다.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면 매우 힘들다. 특히 목회자에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남의 일을 돌보아야 한다(4). 그 대표적인 인물: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통, 그 이후 영광,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패턴. 특히 목사, 집사. 지역 인도자와 그 아내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남의 일을 돌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여야 한다. 추천이 들어와야 한다. 이것이 사역(섬김)이지 자기 기쁨이나 도취로 행세하려 하면 안 된다. 바울은 예수님의 예를 보여 주었다. 남들을 볼아보기 위해 자기를 낮추고 복종, 그리고 영광 우리는 다 동의한다. 그러데 문제는 “어떻게 실천하는가?”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게 보임 하늘의 별을 따라는 것이 아니다. 목표는 높지만

바울은 빌2:12-18에서 그리스도처럼 복종하는 패턴과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할 수 있는 힘에 대해 말한다. 그 힘은 하나님이다(갈2:20).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굴곡이 있다.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무언가가 들어오고 무언가가 나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어 일한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패턴 <그리스도인의 워크아웃과 하나님의 워크인>

그리스도인의 워크아웃(12)

12절은 많이 오해하는 구절 중 하나, 성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구절 일단 바울은 순종할 것은 권한다. 어떻게 무엇을, 기존 성경: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편지의 대상: 빌립보 교회 성도들, 1:1 그리스도 안에 있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가? 이단들이 애용하는 구절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힘을 다해 이루어야 한단 말인가?

여기에 보태어 베드로전서 2장 2절이 있다. 다른 성경: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work out your own salvation, 많은 이들이 work for your own salvation으로 이해함 work out은 그런 뜻이 아니다. 워크아웃 기업, 기업이 이미 있다. 다만 재무 상태가 나쁘므로 여러 구제책을 사용해서 기업을 정상화하려고 할 때 쓰는 용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

그러므로 워크아웃은 구원에 합당하게 인생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체질 개선)

그러므로 work out의 당사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최상의 열매를 내지 못함. 그러다 보니 한 마음이 안 됨, 교회 분열, 가정불화

우리 삶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워크아웃(구조 개선, 체질 개선)해야 한다. 최상을 발휘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형상에 다다르기 위해 워크아웃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좋은 크리스천 부모, 어떤 남자 아이의 꿈, 고등학교까지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아버지가 의사라 늘 그렇게 듣고 자랐다. 그런데 대학에 가서 마음이 변했다. 부모에게 이야기하려니 두렵다. 결국 이야기한다.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일을 하려고요.” 부모에게 이야기를 할 때 두렵고 떨린다. 그러나 이 아이는 이제 자기의 구원을 일하여 행위로 드러내는 것이다. 인생 워크아웃을 하는 것이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여 드러내는 것, 이것이 구원을 행위를 통해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워크아웃해 주신다는 믿음, 최상의 삶이 되도록

워크아웃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14-16)

왜 워크아웃(구조 개선, 체질개선)이 필요한가?(14), 불평이나 시비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교회에 합당하지 않다. 불평과 시비는 불신자 세상과 관련이 있다.

왜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다.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있다. 여기에 맞추어서 판단하면 불평과 시비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세상은 다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한다(자기 눈에 옳으면 끝)

우리를 세우신 목적(15): 흠이 없고 무해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곧 세상의 빛들이 되는 것(15): 모든 선한 것을 드러낸다. Total truth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것: 복음 선포

목사의 기쁨(17-18)

그리해야 바울의 기쁨이 된다. 목사의 기쁨이다. 사역자의 기쁨(17-18)

지난 주 사도 바울 영화, 참수당하면서도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들, 자기가 함께 살게 될 사람들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 현물로 드러진다는 것의 의미(남을 돌보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

워크아웃의 원천: 하나님의 워크인(13):

워크아웃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구원받기 이전, 이후의 육신의 힘으로는 불가능

워크아웃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셔야 한다. 워크인이 필요하다.

성경의 모든 성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패턴, 모세, 다윗, 바울, 베드로 등

모세를 보자. 120년의 인생, 40+40+40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세상 학문, 지혜, 무력 등 훌륭함

자기 힘으로 동포들을 구해내려고 함, 살인을 저지르면서까지, 그러나 실패함

그 뒤 40년, 미디안에서 양 떼를 돌보는 무명의 삶, 바로 이대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심
이 워크인 파워에 따라 그는 40년 동안 그 힘을 워크아웃했다. 일하여 드러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적인 압력에 따라 복종한다(교회나 목사 그룹의 압력).

그러나 우리는 내부의 힘에 따라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겉으로도, 속으로도 변화가 생긴다(2:12).

목사나 교회를 의지하면 안 된다. 내부의 힘으로 해야 한다.

13절의 일한다는 말은 에너지이다. 우리 안의 에너지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어려운 일, 성령님의 에너지로 일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증거

먼저 성령님이 일하셔야 한다. 말씀 읽고 기도한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 이게 너무 피상적이다.

오늘은 가장 간단한 증거 이야기: 하나님의 워크인, 우리의 워크아웃 증거: 건강한 가정생활
인생과 구원의 워크아웃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전도, 교회 봉사, 사회 봉사, 선교 등 다 중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가정, 부부 관계

1. 남편: 경제적 책임 부담, * 건강(질병, 중독-술, 담배, 인터넷 등), * 사회적 부담(직장...), *아내와
가족들의 성격 차이

2. 아내: *경제, *자녀, *남편과 성격 차이

3. 현대인이 결핍을 해소하는 방법

스마트폰(유투브영상, 게임, 음란물), 영화, TV, 연예인, 게임

주식, 비트코인, 쇼핑, 기타 취미 활동이라 여기는 것들에 지나치게 시간과 물질을 할애하는 것.
최근 애국 강연 및 관련 영상들을 지나치게 시청하는 것 포함.

그러나 무엇이든 지나치면 중독이 된다. 본질에 대한 해결이 점점 멀어진다.

그 결과 가족관계는 더 악화된다.

4. 성경적, 현실적, 실천방안, 성경적 원리를 가정에 적용해보자. 체질 개선 워크아웃해야 한다.

1. 자신만의 동굴(위에서 언급한 현실 회피 요소들...각종 중독들)에서 빨리 나와야 한다.
2. 과거 정리하기(그동안 자신의 문제로 인해 불필요하게 벌어졌던 상황..환경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버리기)
3. 절대적 시간과 상대적 시간을 파악하기(우선순위를 정하라. 가정이 우선)
4. 대화하기(어색하다면 가족과 같이 저녁마다 산책하기), 같이하는 시간을 만들자.
5. 이 일은 특히 남편들의 몫: 대개 남자가 잘해야 가정이 잘된다.
아내들이 가장 원하는 것: 같이할 시간을 내 달라.
불평과 시비가 없으려면 아내의 말을 잘 경청해야 한다. 나도 힘들지만 이것이 인생과 구원 워크아웃이다.
6. 남자들을 위한 실제적인 제안:
세상을 알아야 한다. 성경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이 두 개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둘 다 끊어야 한다. 유튜브 시청 중지, 성경 공부 들고파는 것 중지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듣는 시간을 내라.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해라.
7.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워크아웃하는 실제적인 방법이다.
가혹한 것 같아도 그것이 먼저이다. 어떻게 아는가? 우리 안의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람
이렇게 하면 가정이 금방 좋아진다. 이래야 14-15절이 성취된다.

결론

일단 구원받아야 워크아웃할 수 있다. 예수님만 신뢰해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연구하라. 가장 먼저 가정에서 워크아웃하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노력하되 남편이 더 노력해라.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가정 구성원을 기쁘게 하고 사역자를 기쁘게 한다.

ㄹ 이 시대의 최고의 적 무관심을 종의 마음으로 이기는 성도

성경말씀: 빌2:19-30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의 일들을 돌보지 않는다(2:4). 예수님의 모범(5-11), 바울의 모범 그런데 알지만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워크인이 있어야 한다(2:13). 그 뒤에 우리가 워크아웃을 할 수 있다(12). 그것은 곧 성령 충만이다. 현상: 온전한 가정생활, 가장 확실함 21세기, 떡고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데 사람들 간의 관계는 망가지고 있다. 이유: 무관심 다른 사람을 돌보려 하지 않는다(2:4). 돌보다가 오히려 당한다는 두려움, 미풍양속 실종 <이 시대의 최고의 적은 무관심이다>

가족 간에도 대화가 별로 없고 떨어져 있는 부모나 형제간에도 별로 왕래가 없다.

오랜 만에 안부 정도 전화하는 것도 귀찮아하는 세상이 되었다.

남이야 어떻게 살든 이웃에 대하여도 관심이 없다.

아파트에서 10년을 살아도 이웃집 사람들의 얼굴도 모르며 사는 시대다.

교회에서 행사를 위해 무슨 말을 하여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나대로의 방식대로 살며 남에게 간섭 받지 않는 삶을 추구하다 보니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교회 내에서도 새로 온 신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부교역자들이 새로 와도 관심이 없어서 조금

큰 교회에서는 부목사 이름조차 모른다. 심지어 대학교 교수도 마찬가지

기도도 식사기도 외에는 관심을 기울지 않으며 주일 낮 예배 한번 외에는 마음에 부담도 관심도 없다.

어쩌다 오후예배나 수요일예배에 참석하면 웬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

무관심의 극치이다.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이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그 외의 사람을 나의 이웃이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참으로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 가는 교회 내 사람들의 풍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 정도로만 생각되고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 주일날 교회 갈 때 성경 찾느라 법석을 떨고

예배의 중요성에 관심을 두지 않으니 예배에 지각을 해도 별로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주일 예배드리는 것이 평상시 화장실 가는 것처럼 관습에 매여 행하는 일상에 불과한 신앙생활의

양상을 띄고 있다. 회개에 관심이 없고 회개를 안 하니 회개의 눈물이 메말랐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자신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단지 천국 가고 싶은 욕망에 사로 잡혀 행하는 주일 행사에 불과

나의 삶만 존재하는 무관심의 극치가 교회를 뒤 덮고 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적은 무관심이다. 하나님도

관심 밖의 존재요, 세상에 나만 있을 뿐이니 오히려 어찌 할꼬?

책 제목: <무심한 엄마, 무관심한 선생님>: 끔찍한 고통 속에서 혼자 싸움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그들의 바로 곁에 있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관심이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관심 표명

사람들의 주장: 예수님이나 바울이니까 남을 돌본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사례 필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 삶의 모범으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예를 든다. < >

디모데(19-24)

아마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그를 만났을 것이다(행14:6). 그때에 회심 가능성(고전4:17)

성경을 보면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가 먼저 회심하였다(딤후1:3-5)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어머니는 유대인(행16:1), 바울은 그를 자기 아들이라 부름(딤후1:2)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하며 더베와 루스드라로 다시 감, 이때에 그는 선교 일행이 됨(행16:1-4)

디모데의 삶에서 배우는 교훈: 남을 돌보려는 마음, 복종하는 자세는 하루 사이에 생기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마음, 생각을 키워야 한다. 나면서부터 종이 될 자질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며 배웠다. 바울의 신뢰(22)

1. 디모데의 종의 마음: 바울의 필요: 감옥에 있다. 누구를 빌립보에 보내 그들의 사정을 알아보고 돕고 싶다(19-20). 로마의 수많은 성도들, 로마서 16장을 보면 그가 이름을 언급한 사람만 26명

그런데 디모테를 빼고는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사역이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의 영적 육적 필요에 부응하는 것

교회 사역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잘못: 친구를 얻고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고 싶다.

바울의 권면(고전4:1-4), 신실한 사람, 필요할 때 응하는 사람

오히려 로마 성도들 가운데는 악한 일을 하는 자들도 있음(1:15-16).

바울을 비방하는 데는 시간이 있으나 그를 돕는 일은 방해함

우리의 시간, 에너지, 재능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써야 한다. 우리 청장년들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감사, 특별히 교사들에게 감사, 식사 주방, 주차 봉사, 방송실

디모테의 가장 큰 관심: 다른 성도들의 영적 유익, 이것은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자질

2. 종으로서의 훈련(22): 회심하자마자 데리고 간 것이 아니다. 더베 교회에 남아서 교제하게 함
그 교회 안에서 자라남, 몇 년 뒤 다시 더베로 감. 그는 좋은 평판을 가짐(행16:2)

디모테전서의 교훈: 초신자는 안 된다(딤후3:6-7).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자마자 무언가 하려고 애를 쓴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무언가
과도한 일을 하려 하면 지쳐서 쓰러진다.

나무가 있다. 뿌리가 지탱한다. 그런데 뿌리가 자라기도 전에 가지들이 뺏어나가면 나무가 쓰러진다.

내면을 다져야 한다. 가정을 다져야 한다. 가정이 화목해야 한다. 그래야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

바울의 훈련 방법(딤후3:10-17), 자기 삶을 보게 함, 예수님의 방법

성경을 의지하게 함, 성공적인 삶을 위해 경험과 교리가 동반되어야 한다.

3. 디모테에게 주어진 영광의 보상

바울이 필요로 하는 데는 다 있었다. 바울 서신에 24회 등장

하나님의 가장 큰 보상: 바울의 위를 잇는 것(딤후4:1-11), 디모테는 바울의 아들, 종, 나중에는

후계자, 바울은 그에게 직접 두 개의 편지를 씀: 딤후전, 딤후

바로 이런 일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역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에바브로디도(25-30)

빌립보 교회의 성도, 아마도 이방인, 그곳 성도들이 로마로 보냄(4:18), '호감이 가는 사람'

1. 균형 잡힌 성도(26); 형제, 함께 수고하는 자, 동료 군사

성도의 생활: 교제와 전도, 균형, 검과 삽을 든 사람

2. 부담을 진 성도(26-27, 30),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특히 사도 바울, 바울의 감옥 생활,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의 선물을 들고 적어도 1000킬로미터 거리를 달려감

3. 얼마나 힘들었는가(27), 병들어 죽게 됨(30)

그는 사랑의 선물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주려 하였다. 이런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관계가 매우 많다. 특별히 리더와 그의 뒤를 잇는 사람의 관계

모세와 여호수아(민11:24-30), 백성의 불평, 모세가 죽여 달라고 함(15), 메추라기 사건

모세와 70명 장로들, 주님의 영이 내려옴(25), 진영에 두 사람이 남아 있음(26), 엘닷과 메닷

대언함, 여호수아의 딸(28), 감히 왜 다른 사람들이 대언하는가?

단순히 복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인 인간 자체를 사랑해야 한다.

교회를 사랑한 사람(26), 병에 걸린 외중에서도 교회 사람들 생각, 오히려 그들의 염려를 두고 걱정함

복 받은 성도(28-30); 자기가 복을 받고 남에게 복이 되었다. 바울의 감사(27), 하나님은 은혜와

공활을 베풀어 주심, 바울의 권면(29),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

결론

교회와 가정,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야 한다. 디모테와 에바브로디도. 아들과 아버지, 목숨을 내놓는

관계, 훈련 필요, 무관심한 세상에 말씀을 보내는 일, 구원받게 하는 일, 미디어 선교(빌2:4)

머리 생각의 무능은 파멸을 가져온다

성경말씀: 빌4:8-9

성경에는 위대한 구절이 많다. 요3:16, 롬8:28, 구원 이후 성화 필수

성화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 성령님의 내주, 성경 읽기, 그러나 생각이 없이는 고도의 성화 불가능
롬12:2,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 mind, 아무리 음식이 풍부해도 먹을 마음이 없으면 무용지물
어떻게 생각의 변화를 받는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깊게 생각해야 한다.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구절을 우리에게 준다(4:8).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장 중요한 것 생각하는 기능, 이를 위해 머리를 주셨다.

머리의 기능: 생각하는 것, 우리말 성경에는 생각이 450회가 나온다. 심히 중요하다.

개인, 교회, 국가의 흥망성쇠가 생각에 달려 있다. < > 무능 극복,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뇌와 생각

뇌 연구: 1400그램, 140억 개 신경 세포, 수많은 정보들, 컴퓨터가 따라갈 수 없다. 결국 생각
몸무게의 2.5%, 뇌에 흐르는 피의 양은 15%, 칼로리를 뇌에서 많이 소모한다.

이러한 사람의 생각의 절정, 그리스도의 생각(빌2:5, 고전2:16)

사람의 작품인 어떤 컴퓨터도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질 수 없다.

성화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는 것, 거기에 다가가면 갈수록 성화의 깊이 증대(잠4:23, 막12:30)
생각의 기능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짚 수 없다. 생각이 흥망성쇠 결정
그러므로 항상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켜야 한다(고후10:5).

바울의 주문

이 구절이 나오는 배경, 먼저 6-7,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화평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성도의 경우 죄를 지으면 불안이 생긴다. 불신자의 경우 양심이 인두로 지저졌으면 불가능

순수함을 유지하면 화평(사32:17), 생각을 고정한 자는 화평(사26:3, 약3:17)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감정과 행동 유발, 결국 우리를 붕괴시킨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가?

1. 진실한 것: 무엇인 참인가? 사람은 아니다. true, 유일하게 true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롬3:4)
예수님의 말씀(요14:6),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진리만을 가르친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다(요일5:6).

마귀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요8:44), 거짓말로 사람의 마음을 부패시킨다(고후11:3).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해서 결국 파멸로 이끈다(창3).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무엇인 진리인가? 1. 하나님이 계신다(그냥 생기지 않는다. 사람은 창조된 존재, 창조자가 있다.

이것이 진리이다. 사람들은 작은 거짓말에는 잘 안 넘어간다. 크면 클수록 넘어간다. 진화론: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오다”. “종이 바뀐다”

2,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3.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그 길은 유일한다. 4.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5. 하나님이 이것을 알 수 있게 해 주셨다(창조 세상과 양심). 6. 오직 성경만
진리이다. 7. 기독교만 진리이다. 왜? 절대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2*2=4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 반드시 진실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은 생활 영역 전체에서
지금 이 나라는 혼돈의 도가니 속에 들어 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사5:20(악을 선하다 악을 선하다) 렘5:1-2, 진리가 실종되었다. 심지어 성도/목사들마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보라. 탄핵으로 몰고 간 태블릿 PC 등 거의 다 가짜 뉴스, 무관심
프리덤뉴스 이상로 <진신리 편에 서게 해 주신 신께 감사한다>

목사와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 무엇이든 참된 것을 생각해야 한다.

2. 정직한 것, 일꾼의 가장 큰 특징, 정직한 링컨(행6의 7집사 요건)

3. 의로운 것: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해야 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 성도는 의로워야 한다.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순복음 교회 이영훈 목사 발언, 김정은 오면 국가적 차원에서 예우를 갖추어 환영해야 한다. 이것은 기독교, 기독교의 하나님을 잘못 이해, 무조건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 개인 영역 실천 노력 그러나 국가는 그리할 수 없다. 국가는 적을 살피고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무력으로 섬멸해야 한다.

이 나라 혼돈의 원인 북한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마귀 체제, 섬멸해야 한다. 생각하지 않으면 악에 동조하는 사람이 된다.

목사와 교회가 의로움을 추구해야 한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력 석방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

4. 순수한 것:

도덕적 순결, 특별히 성적 순결, 동성애는 더러운 것(엡4:17-24; 5:8-12)

5. 사랑스러운 것: 음악, 영화, 책, 옷, 말 등

6. 좋은 평판이 있는 것: 추천할만한 일들, 그러므로 성도는 고상한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

7. 결론: 무엇이든 덕과 칭찬이 있는 것

덕이 있는 것: 우리도 해야겠다. 칭찬이 있는 것: 남들에게 알려야겠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일,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일 등에 생각과 시간을 쓰면 안 된다.

성도는 이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안의 갈등, 2절의 유오디아와 순두게 시19:7-9, 시119:165

생각의 무능은 멸망을 가져온다.

카이트 교수님이 보내 준 글, ♡ 생각이 무능한 자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1961년 4월 11일,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특별 법정에서 유명한 재판이 열렸다.

피고는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Otto Adolf Eichmann)이었다. 아이히만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 친위대의 정예로서, 유대인 문제에 대한 '마지막 해결책', 즉 유대인 학살의 실무 책임자였다. 그는 유럽 각지에 있던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이송시키는 임무를 맡았었으며, 자신이 무려 500만 명의 유대인을 수용소로 이동시켰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재판 소식을 듣고 단번에 예루살렘으로 날아간 사람이 있다. 한나 아렌트였다. 유대인이었던 그녀는 나치의 탄압에 의해 갖은 고생을 하다 미국에 자리를 잡았고, 정치철학자로서 인정받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다. 집필 활동을 통해 전체주의를 맹렬히 비판해오던 그녀는 아이히만의 소식을 듣고 뉴욕커 지의 특파원 자격으로 전범재판에 참관하게 된다.

악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인물을 기대했던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다. 그녀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인물이 피고석에 앉아있었던 것이다.

아이히만은 지극히 평범한, 아니 평범함 그 이상의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인 그는 부하들에게 친절한 상사로 알려져 있었고, 원만한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칸트의 의무론을 인용하여 자신을 변호할 만큼 지적 교양을 갖춘 이였다.

그의 정신 상태를 분석한 정신과 의사들은, "이 사람은 나보다도 건강한 정신을 지니고 있다"고 진단했으며, 아이히만이 "정상일 뿐 아니라 바람직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정했다.

아이히만에게는 심지어 유대인 친구들도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와 내 친구들 중 유대인을 미워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나는 단지 명령 받은 일을 성실히 실행했을 뿐이다." 어째서 그러한 일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느냐고 묻자, 그는 그 일이 자신의 의지로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자신의 의지로 유대인 수백만 명을 죽였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테지만, 이는 상관의 명령이었고,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공직자의 서약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의무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명령을 받든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이히만에 대한 재판은, 국제적 관심 속에 7개월 동안 이어졌고, 결국 1962년 5월 31일, 아이히만에게

사형이 집행됨으로써 마무리된다. 재판을 지켜본 한나 아렌트는 그녀가 관찰한 아이히만의 모습을 담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역작을 탄생시킨다.

한나 아렌트는, 이 책에서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그녀가 관찰한 것에 대해 서술한다.

아이히만은 파괴적인 사상에 젖어있는 악마적 나치 광신도가 아니었다. 우리 모두와 같은 평범한 사람 중 한 명이었을 뿐이었다. 마찬가지로, 홀로코스트와 같은 역사 속 악행들은, 정신병자나 미치광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 등에 의해 자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에 순응함으로써 타성에 젖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선악구분이 무뎠던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한다.

“아이히만은 아주 근면한 인간이다. 그리고 이런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했을 뿐이다. ... 파시즘의 광기로든 뭐든, 우리에게 악을 행하도록 하는 계기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멈추게 할 방법은 생각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누구나 거대한 악을 행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무려 500만 명의 유대인을 가스실로 보낸 아이히만의 끔찍한 행위는 그의 내면에 있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악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타성에 젖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은 ‘생각의 무능’에 의해 일어난 일이었다. 다시 말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려는 의지를 잃는 순간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악마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체 속에서, 집단 속에서, 군중 속에서 거대한 여론이라는 타성에 젖어 스스로 사고하는 것을 멈춘 사람들이 많다.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따라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 실제 사건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모두가 욕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크게 걱정할 병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온 사회가 공유하는 미신적 공포에 더욱 신뢰를 가지는 사람들.

기억하라.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만든 것은 그 어떤 특별한 악이 아닌, ‘생각의 무능’이었다.

생각의 무능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다.

북한을 찬양하는 너무나 많은 생각의 무능한 자들.

위 역사의 교훈이 얼마나 참담한 현실을 가져 오는지를

모르는, 대한민국의 중북 세력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일 것이다.

Brain이 있고 thinking을 하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이 혼란한 세상을 버티며 살 수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수많은 부조리를 곰곰이 생각해서 버려야 한다.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우는가?

9절, 이미 바울은 이것들을 가르쳤다(9). 기독교는 총체적 진리, 어디에 있는가? 딤후3:16-17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생각하지 못해서 못한다.

9절에는 4가지 행위가 있다. 배우고 받고 듣고 행한다.

배우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차이가 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바울의 삶의 특징: 말씀을 가르치고 그대로 살았다. 그 결과 그의 삶에는 진리가 보였다.

듣고 행해야 한다(약1:22).

하나님의 화평(골3:15)은 생각하는 자들에게만 거한다. 총체적 진리를 듣고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과 교회와 국가에만 화평이 있다(시101:2-3).

주님의 경고(마5:29), 악한 것을 거부해야 한다.

결론

이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생각하지 않으면 개나 돼지 같은 인생이 된다. 생각의 무능은 파멸을 가져온다. 생각해서 진실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한다: 하루 3장이면 일 년에 한 번

이번 주에는 빌4:8을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빌4:9).

유명한 속담,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따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삶을 평가하는 지혜로운 성도

성경말씀: 빌3:1-11

성도가 될 때 나타나는 변화: 책을 읽고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긴다. 4:8은 위대한 구절이다. 오늘은 2018년을 마감하는 주일, 마지막 예배, 우리 삶을 평가해 보는 시간
빌립보서 3장은 3부분으로 구성됨, 바울의 과거(1-11), 현재(12-16), 미래(17-21)
과거가 중요하다. 이것이 기초이다. 무엇을 버렸는가? 무엇을 얻었는가? 무엇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3장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요약한다. < >

악한 자들을 조심하라(1-2)

성도가 되면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다(벧전5:8).

바울의 역할: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1), 이전에 쓴 것들, 알려준 것들 다시 반복
누구를 조심해야 하는가? 개들, 악한 일꾼들, 할례자들(2), 이들은 누구인가?
사도행전 예수님 승천, 2장 오순절 그 이후로 10장에서 고넬료가 구원받기까지 약 10년 동안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과 유대인 개종자들에게만 선포되었다. 8장부터 사마리아, 사울의 핍박, 안디옥 등
베드로는 10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선포, 성령 침례, 유대인들 소동, 11장에서 해명
이방인들 구원이 왜 문제? 유대인들만 선민, 개돼지 취급, 유대인이 되지 않고 구원받음, 경천동지 사건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일을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고 고백함, 유대인들의 응답(행11:17-18)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행13-14장), 15장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온 유대인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행15:1).

예루살렘 회의 결론: 유대인들의 규약의 모든 관습, 규례 불필요, 베드로의 고백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행 15:8-11).

많은 유대인들 불만 표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서 사역 방해, 회심한 사람들을 다시 유대교로 끌고 감, 유대주의자들: 율법과 은혜를 혼합하는 자들, 갈라디아서에 강력하게 경고(갈1:8-9)
빌3:1-2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

-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함, 바울은 정통파 유대인들을 개, 당시 개는 애완견이 아니다. 질병
- 악한 일꾼: '믿음 + 행위' (엡2:8-10, 딤후3:3-7), 저주받을 이단 신앙, 이단/사이비의 특징
- 할례자들: 포피를 베어내는 자들, 많은 유대인들: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 바울 아니다 단지 살을 베어내는 것이다.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적인 할례를 받는다(골2:11).

참된 그리스도인

-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3), 형식이나 장소가 아니라 영적 예배(말씀과 성령님), 요4:19-24
- 예수님을 기뻐한다: 행위나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한다. 유일한 대속 희생예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행4:12). 그분만 기뻐하고 자랑한다.
-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할례도 있지만 여기의 육체는 세상의 자랑거리(학식, 재물, 명예 등)
- 바울의 예(4-6): 나도 자랑할 수 있다(4). 육체에 관한 한 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구원받기 전에 나는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다(4). 개종자가 아니다. 이스마엘이나 에서의 후예가 아니다. 정통 유대인(5),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베냐민 지파, 사울 왕, 그 뒤로 유다 왕국의 신실한 시민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문하생, 가장 엄격한 파당
율법과의 관계: 의로운 자(6),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100%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교회와의 관계: 본인의 진리가 확실하므로 심지어 반대하는 자들 차단
예수님 따르는 자들 박해, 스테반 죽이는 일 동의,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데려다가 박해
- 결론: 유대인들의 종교적 스펙으로는 더 이상 완벽함을 찾을 수 없음, 이것이 바울의 과거 이처럼 육체를 통해 의를 얻고자 하는 것을 종교, 행위 의인이라고 한다.
마르틴 루터가 한때 이런 사람이었다. 천주교회의 틀 안에서 노력했으나 불가능

요한 웨슬레가 한 때 이런 사람이었다: 미국 선교 여행 등, 올더스게일에서 회심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변화가 되었다.

바울의 변화(7-11)

다소의 사울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다(행9).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여 구원받음
이러한 변화는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이때에 성도는 잃게 되는 것들이 있고 얻게 되는 것들이 있다.

1. 무엇을 잃는가?: 하나님 밖에서 자기에게 이득이던 것들을 다 잃음
학자로서의 명성, 종교 지도자로서의 명예, 유대인으로서의 자랑, 아마도 가족 관계
모두 중요한 것들, 그는 이런 것들을 주님의 보화와 비교하고는 그리스도를 위해 뚱으로 여겼다(8).
이런 것들은 개인의 영광, 그러나 하나님께는 전혀 영광이 되지 못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 직전에 멈춘다. 잃을 게 너무 많다.
구원 이후에 잘못된 관행을 깨지 못한다. 잃을 게 너무 많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손실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나쁜 것들은 당연히 다 버렸다. 그런데 좋은 것들까
지 다 버렸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즉 구원을 얻으려고 지킨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좋은 것들을 지켰다.

2. 무엇을 얻었는가? 한 마디로 그리스도를 얻음(8)
 - a. 그리스도를 아는 것(8),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위엄, 빼어남, 고상함, 존귀함
단순히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 안다는 말, 아담이 이브를 알았다.
영생은 이것이니..(요17:4), 개인적인 친밀함
 - b. 그리스도의 의(9), 성정의 구원은 의를 얻는 것이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므로, 의는 100% 옳다는
것이다. 그전까지는 율법의 의, 자기의 의를 추구하려고 열정을 쏟았다. 인생의 자랑거리, 육체
자랑,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에게 덧입혀 주시는 의, 칭의
전가 행위(imputation): 내 계좌로 넣어 주는 것,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내 계좌로 들어옴
이전(9) 로마서 9-10장, 유대인들의 오산,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고 열시를 내어 했으나 결국
하나님을 떠남
 - c. 그리스도와의 교제(10-11): 사람이 변화였다. 단순히 육신과 물질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분의 삶을 나눈다.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과 함께 생각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에게 순종하였다. 갈2:20, 그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부활의 권능이 넘치는 삶(10)
 - d. 심지어 그분의 죽음과 고난에 참여하는 삶, 2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여된 것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삶, 고통당하는 삶, 1세기 사람 중에 바울과 같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후11장을 보라).
 - e. 그러므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다(고후4:16-18).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로마 감옥에서도 4:4를 쓸 수 있었다.
 - f.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목표로 두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 고난과 핍박에도 동참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다(빌2:5).

즉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늘의 관점에서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것

회계 보고를 생각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 조용히 앉아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를 평가하는 사람
영원한 것이 있고 잠시 있는 것이 있다. 신구약 모든 성도들(히11:24-27)
바울은 영원한 것에 베풀었다. 얼마나 100% 그의 삶을, 나도 그리한다.
이제 다 확실히 평가해서 버릴 것 버리고 정리하고 2019로 넘어가자. 귀한 해가 될 것이다.

10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성화에 집중하여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성경말씀: 빌3:12-16

교회와 성도 문제가 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안에도 분열이 있었다. 선한 사람들 가운데도 있다(4:2).

육신을 자랑하는 자들도 있었다(3:2). 유대교의 외적 치장을 중시하는 사람들, 바울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신 기록, 예수님을 본받아라(2:5), 나를 본받아라(3:17)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의 전기, 과거(4-11), 현재(12-16), 미래(17-21)

그의 과거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 준다.

버릴 것을 버렸다. 쓸데없는 자랑거리(5-6).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9).

그분의 죽으심, 고난에 참여함, 그 뒤에 그분의 부활의 권능, 그리고 부활에 도달한다(10-11). 그는 회계장부에 하나하나 과거를 기록하는 회계사처럼 과거 정리, 우리는 이런 사람이가?

구원받은 뒤 현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를 든다: 농부, 건물, 군사, 운동선수 등

오늘 12-16절은 그의 현재 모습을 그린다. 최종 결승점을 향해 밀치며 나가는 운동선수(14)

14절 그는 쫓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간다. 어떤 운동인지 모른다. 100미터 달리기, 벤허의 마차 경기

여하튼 그는 전력을 다해 결승선을 향해 밀치고 나가는 운동선수를 그리고 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현 세상에서의 삶이다.

살펴볼 12-16절은 구원 이야기가 아님. 행위 구원이 된다. 구원받는 자가 목표를 향해 분투하는 일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전력 질주, < > 성화 중에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나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다(12).

이미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10). 그럼에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다.

성화 중에 있는 성도의 특징: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면서도 내삶을 보면 좌절이 생긴다(롬7:21-25).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도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함: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엡4:13) 나보다 못한 성도들과 비교하면서 만족하면 안 된다.

바울의 경우 다른 성도와 비교하면 아마 만족했을 것이다.

우리 자신에 대해 오판을 하지 말라. 사데 교회(계3:1). 라오디게아 교회(3:17)

우리 삶에서 우리가 취할 완전한 목표(12)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붙잡는 것

주님께서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그를 붙잡으심, 어떤 목적(행26:16-18, 20-22)

바울의 전 생애는 그것을 붙잡는 것, 약 30년 동안 수많은 곳을 다니며 그 일을 행함

어떤 것도 그를 막지 못한다(행20:23-24). 우리에게 이 목표가 있는가?

이 목표가 삶에 있어야 성공한다. 성화의 삶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꼭 목사, 선교사가 될 필요 없다. 나를 내신 목표, 그 목표를 붙잡아야 한다.

바울의 자세(13): 선택가 집중

앞에 있는 것들에 도달하려고 애를 쓴다. 부분적으로 만족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러려면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한다. 한 가지 일: 과거의 것들은 잊고 앞에 있는 것들로 나아간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다. 주님: 마르다에게 한 가지가 필요하다(눅10:42). 여러분은 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가?

실제 성공하는 다수는 한 가지에 집중한다. 공부도 집중해야 한다.

성도의 삶도 성화 하나에 집중한다. 교회 사역도 가능하면 하나에 집중한다.

그가 한 가지에 집중한 결과 신약성경 기록, 수많은 사람 구원

선택과 집중이 성공의 비결이다. 다 할 수는 없다. 게리 켈러 저 <원씽 The One Thing>

그런데 과거에 집중하면 안 된다.

성공하지 못한다. 달리기가 이미 시작되었다.

처음에 무언가 스타트가 불안했다. 여기에 집중하면 그 날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과거를 잊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과거를 잊으라는 것은 과거에 매여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이다.

한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사람이다. 여기에 매이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과거는 우리에게 반성하고 앞으로 나가는 인자가 되어야지 발목을 잡는 인자가 되면 안 된다.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들: 신세 한탄, 부모, 환경, 사회 계급 탓, 책임 전가, 피해망상

주로 좌파들이 하는 것이다. 부수기만 한다. 왜 그럴까? 세울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요즘 문제인 정부 하는 것 보라. 적폐 청산, 과거의 좌파 행적을 왜곡하려 한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제주 4.3 사건 등, 심지어 동학 난도 혁명으로 만들어 위로금을 주려는 것 같다.

“미래 비전이 없는 지도자는 과거에만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힘든 일이지만 과거를 자기들의 잣대로 '정의 구현'한다는 미명하에 단죄하는 것은 너무 쉽고, 소위 정의명에 걸린 한국인들을 선동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지요. 이념병에 걸린 현 위정자들을 보면서 젊은 세대로서 다음세대가 너무도 걱정됩니다. 정작 해결해야할 현실적인 문제는 산더미처럼 있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다 보니 떨어지는 지지율을 자신들이 잘하는 선동 정책으로 국민을 우롱해서 만회하려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정말 속이 타들어 가고..절박한 심정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바울에게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우는 사람들이다. 과거 위에 미래는 세우는 사람들, 어두운 과거를 부수어야 한다.

마르틴 루터의 정신, 미국 사람들의 정신, 위대한 미국 건설, 링컨의 정신

이승만의 정신, 박정희 정신, 이병철, 정주영의 정신, 대한민국의 정신

창세기의 요셉을 보라. 형들의 과거, 그를 악하게 대함(창45:7-8)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거를 보았다.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 인생을 망친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성도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다.

뜻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간다(15), 전력 질주, 누가 무어라고 해도 한다.

놀 것 다 놓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전력 질주 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한다(빌2:12-13).

인정받지 못해도 좋다. 바른 일을 한다. 진리 편에 선다. 자연스럽게 일이 된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힘을 쓴다(딤후4:7-8)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이루려고(14): 땅의 부르심이 아니다!

이런 부르심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있다. 당신에게도 있다. 그것을 아는가?

거기에는 상이 있다(14). 이 상은 구원이 아니다. 천국이 아니다. 보상이다.

경기장에는 오직 시민만 들어온다. 그리고 상을 얻는 자도 있고 얻지 못하는 자도 있다. 다 시민

그리고 그 상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규칙을 지켜야 한다(15-16).

열심히 경기를 하되 규칙에 따라 해야 한다. 우리의 성화에도 영적인 규칙이 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땀어도 후에 규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반납해야 한다(딤후2:5).

이 규칙은 자신이나 관람자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심판이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롬14:10-12). 롬15:19-20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 롯, 삼손, 사울,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16).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한다.

우리 교회의 믿음이 있다. 이미 다 동의하고 여기까지 왔다. 새로 오는 분들 여기에 따라야 한다.

결론

구원받은 자들, 과거를 잊고 한 목표를 향해 질주해야 한다. 하늘의 높은 부르심의 소망, 규칙대로

게리 켈러 저 <원씽 The One Thing>, 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개발 회사의 대표, 총 13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 이 책이 말하고 있는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대한 단순한 진리는 바로 '원씽'(The One Thing),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파고들라는 것이다. 탁월한 성과는 초점 Focus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 많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기는 어렵다. 그러니 다른 모든 일들을 제쳐두고서라도 꼭 해야 할 단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일을 여러 가지로 넓게 펼치다 보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한다.

사람들은 일의 양에 따라 성과가 점점 더 쌓이기를 바라는데, 오히려 일만 많아지고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더하기'가 아닌 '빼기'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아마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책 <원씽 The One Thing>은 복잡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단순함의 힘을 강조한다. 그리고 2마리 토끼를 쫓다 보면 결국 2마리 다 잡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단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책의 저자 게리 켈러는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돌아보면서 흥미로운 패턴 하나를 발견했다.

바로 자신이 큰 성공을 거뒀을 때는 단 하나의 일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했었다는 사실이었다.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자신의 집중력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어떤 일에 파고든다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들을 무시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모든 일의 중요성이 똑같지 않음을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찾아서 집중해야 한다. 한 가지 일에 파고드는 것은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경우에도 통하기 마련이다.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한다. 그들은 꼭 해야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 복잡한 일이 얽혀있을 경우 잠시 시간을 내어 무엇이 중요한지 결단을 내린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일들은 과감히 버린다. 자신이 선택한 일을 중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일에 매진한다. 그들은 늘 주변 상황을 정리하고 집중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작 중요한 일은 미뤄두고 자신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둔다. 당연히 일의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중요한 일을 추려낸다는 마음가짐으로 단 하나에 집중해야 한다.

세계적인 철강회사를 만든 앤드루 카네기는 역사상 2번째로 부유했던 사람이다.

그는 '사업적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 성공의 기본 조건이자 위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에너지와 생각과 돈을 현재 하고 있는 일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일을 시작했다면, 그 분야에서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최신 기술을 받아들이고, 최고의 장비를 갖추고, 그 분야에 대해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분야에 돈과 노력을 투입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단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중요한 시간을 미리 정해두면, 절대로 시간이 부족한 일이 없다.

그날 정해둔 단 하나의 일을 마치고 난 다음 덜 중요한 일에 나머지 시간을 쓰면 된다.

남다른 성과는 생각보다 훨씬 적은 수의 행동에서 나온다. 실천하는 몇 가지 일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리고 핵심은 가장 중요한 단 하나를 먼저 하는 것이다.

성공의 열쇠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핵심적인 일에서 생긴다. 결국 자신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단 한 가지'를 찾고, 그것으로부터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 내기 바란다.

살다보면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느헤미야 당시 성벽 건축, 산발랏 등 반대자들의 방해 만나자, 만나자, 만나자, 느헤미야의 말(느6:3), 나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것 끊고 집중한다.

11 천국 시민으로 영화로운 몸 입기를 고대하는 그리스도인

성경말씀: 빌3:17-21

빌립 교회의 문제, 해결책: 주님을 본받으라(2:5-11). 디모데(19-24), 에비브로디로(25-30)를 본받으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3장, 요약(3:17)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의 전기, 과거(4-11), 현재(12-16), 미래(17-21)

과거는 회계사, 현재는 운동선수, 미래는 자기의 본향을 떠나 외딴 곳에 사는 외국인(20)

과거 현재를 설명한 뒤 그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명령한다(17).

그런 자들을 주목하라고 말한다(17).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심각한 이야기를 먼저 말한다.

어떤 미래를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 >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사람들이 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기쁨이 충만히 담긴 서신, 그런데 바울은 이 안에서 지기가 눈물을 펄펄 흘린 일이 있다고 말한다(18). 무슨 이유일까? 그는 단일한 목표, 환경에 개의치 않음

그런 것들에 의해 기쁨이 상쇄되지 않는다. 그의 슬픔은 다른 사람들 때문이다.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고 그들로 인해 울고 있다.

한마디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바울은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한다(18),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던 말인가? 있다.

아마도 그들은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빌3:2), 유대주의자들

1. 이들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외부인이 아니다.

2.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다. 믿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주님을 대적한다.

유대주의자들: 할례, 율법, 믿음 + 행위(천주교), 직통 계시, 금이빨, 뒤로 쓰러뜨린다, 돈 갈취

3. 땅의 일들을 생각한다. 수많은 부자 목사들, 미국의 대다수 목사: 연봉 5000만원

케네스 코플랜드: 7억 6천만 달러(7600억), 팻 로버트슨(1000억), 베니힌(420억), 조엘 오스틴(400억), 빌리 그레이함(250억), 릭 워렌(250억), 조이스 메이어(80억), 우리나라 5000억 횡령 목사들의 한 끼 식사, 옷, 구두, 차 등이 도를 넘으면 안 된다.

4. 수치스러운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성도들/목사들의 간음/음행

5. 영적이라는 말에 조심해야 한다: 비상식적, 비논리적, 불합리, 비실제적, 신비주의, 꿈, 기도를 길게 이상한 어조로, 아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진리의 영의 지배를 받아 똑똑한 것, 지혜로운 것, 상식적인 것을 말한다. 즉 땅의 일을 하늘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파악한다. 너무 영적이라 세상일을 무시하거나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끗하게 살며 바르게 결정한다. 잔피를 부리지 않는다.

6.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다(마7:21-23)

성도의 신분과 위치

1.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하늘의 사람이다(엡2:4-6). 다른 성경은 시민권이라고 하였다. KJB는 조금 더 리얼하게 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빌4:3). 이것은 마치 아이를 낳으면 그 나라 호적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다. 여권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우리는 하늘의 여권을 받아 땅에 와서 살고 있다. 하늘의 시민, 여행 중에 있다. 여행 중에 잘못 행동하면 본국의 명예에 누를 끼친다.

2. 땅의 일들만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하늘에 속하므로 자연히 하늘의 말이 나와야 한다.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간다. 한국말을 한다.

주님의 말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마12:34-37).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 교회를 세우는 일, 서로 세워 주는 일, 그러므로 자연히 영적인 것을 말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여 하루 종일 성경 말씀만 암송하고 만나면 그것만 말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인간이다. 인간다워야 한다. 로봇이 아니다. 그 말이 하늘의 방식으로 나와야 한다(엡4:29; 골4:6).

3. 하늘의 법칙을 따른다(17). 한국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여행간다. 두 나라 법을 다 지켜야 한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행20:35), 섬겨야 한다(막10:42-45; 요13).

그런데 18-19절의 사람들은 땅의 규칙대로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았다.

땅에서도 세상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벧전2:11-20)

4.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를 사랑하며 산다. 우리는 십자가의 백성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한다. 십자가는 성경의 핵심 주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심을 가장 잘 보여 주는 행위: 자기 아들을 죽임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하신다.

십자가는 구약을 끝냈다: 다 이루었다(요19:30), 구약의 제사장 체계 종식,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은

이것을 다시 살리는 것을 말한다. 여전히 구약의 희생예물, 제사장, 외적인 것으로 나가려는 것, 영원한 단번 속죄(히10:11-14)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제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받음(골2:11-12)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던 중간 분리벽이 무너짐. 이것을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가 되게 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원수

그러므로 하늘의 시민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다.

5. 하늘의 시민들은 하늘에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

땅의 사람들,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 다시 구약으로 가게 한다. 과거로 가게 한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들은 미래를 보며 산다(20-21).

지금 우리는 땅에서 외계인으로 살고 있다. 여기는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활기차게 산 사람들이다.

아브라함(히11:13-16), 모세(11:24-26)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다(히12:2).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요일2:28-3:3).

우리 육신에 갇혀 고통받는 것을 벗어나는 때가 있다(롬7:24).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늘의 몸을 갖는다. 여기서는 조금만 정신 줄 놓으면 죄, 죄, 죄 왜 그런가? 우리 몸이 천한 몸이다(21).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몸이다. 즉 지금은 수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몸이다.

그러나 그때가 오면 몸이 변화되어 모든 생각 언행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된다.

순식간에 이루어진다(고전15:42-53)

이때에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 복종한다.

창조 세상이 다 변한다(롬8:18-21).

그래서 모든 것이 처음의 질서를 회복한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삶을 산다.

마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일이 생김

결론

우리를 살피야 한다.

혹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견고 있지는 않는가?

구원받지 않고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 구약 체계, 자기 방식대로 견고 교회 운영
우리는 하늘 사람의 언행을 하는가?

주님을 기다리는가?

몸의 변화를 기다리는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대인가?

12 걱정 근심과 염려를 이기고 기쁘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기본 요소
성경말씀: 빌4:1-9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감옥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한다. 자기가 유럽에서 처음 세운 교회, 내분이 있다.

유오디아와 순두게 이름 명시(4:2), 문제 모름, 가서 도울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도 바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함(빌1:14-17).

더욱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이 정도 되면 아마 많은 염려와 걱정 근심

그러나 그는 전혀 근심하지 않음, 오히려 걱정과 근심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줌

<라이프성경사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의 4대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인 본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저자의 따뜻한 인간미와 풍성하고 깊이 있는 내면의 신앙심으로 가장 잘 승화시킨 책으로 유명하다. 옥중에서 기록된 것으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감사와 찬양, 환희의 기쁨이 넘치게 표현되고 있는 것도 본서신의 장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서신은 그리스도와의 일치와 연합을 이룬 성도들이 내면의 신앙 인격을 고양시킬 수 있는 좋은 지침서라 할 것이다.

나 역시 설교를 준비하며 큰 은혜를 받음 < >

용어 정리

걱정, 근심, 염려(6):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

careful(6), 여러 방향으로 질질 끌려가는 것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면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두려움과 걱정이 많으면 우리를 여러 방향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쪼개지고 만다.

걱정, worry, 어근은 '목을 매다'. 즉 걱정을 많이 하면 우리의 목을 매서 질식사시켜 죽인다.

두통, 목 아픔, 압, 등 아픔 등, 걱정은 우리의 생각, 소화,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영적 측면에서의 걱정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놓인 상황에 대해 옳지 못하게 생각하는 것, 옳지 못하게 느끼는 것

걱정은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 '걱정하지 마!'로 해결되지 않는다.

내부의 문제, 내부를 다스려야 한다. 평안한 생각이 들어야 걱정이 없어진다(4:7).

건강한 생각, 평안한 생각, 건전한 생각, 하나님의 화평, 그 화평이 우리를 인도하면 성공(4:9).

바울의 권면(4:1-3)

1. 3장에서 그는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한다. 특히 미래의 소망

우리는 천국의 시민, 그리스도를 기다린다(20),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21).

그러므로(4:1),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호칭: 나의 형제들, 나의 기쁨, 왕관

목사(사역자들)가 이 점을 기억하고 목회를 해야 한다. 영원히 함께할 형제자매, 기쁨, crown

2. 교회의 문제(2-3), 유오디아, 순두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 문제를 가지고 산다(3). 그러므로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3).

대부분 교회 문제: 유오디아, 순도게처럼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한다.

지역 교회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성경을 공부해서 지역 교회가 지켜야

할 규칙, 문화, 철학을 만들어 시행한다. <우리의 믿음과 약속>, <철학과 문화> 소책자

이것들을 읽고 동의하면 정착하여야 한다(3:16). 아니면 맞는 데를 찾아서 정착해야 한다.

가장 보기 흉한 것: 같은 교회에서 싸우는 것, 아이들에게도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으로 같은 믿음의 교회를 찾아야 한다.

좋은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요소(4:4-7)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구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인품(성품),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성품의 가장 중요한 요소 세 가지: 기쁨(4), 절제(5), 신뢰(6-7)

1. 기쁨, 주를 기뻐하라(4).

바울의 상황이 기뻐할 상황인가? 아니다. 그런데 '기뻐하라'고 명령한다(4).

맞지 않는 말: 네모난 원, 세모난 원, 우울한 그리스도인, 심각함이 우울함이 되면 안 된다.
기쁨: 상황에 관계없이 내적으로 쾌활한 것, 행복은 외부 상황에 따라 변한다. 그러나 기쁨은 동일하다.
기쁨의 원인: 내부에 있다. 그래서 주를 기뻐하라고 말한다. 그러려면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성경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아야 한다(롬15:4).

예수님의 삶을 보아야 한다(요14:8-10). 빌립,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의 종착지는 항상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롬8:28).

시94:19, 104:34, 37:4

그런데 항상 기뻐해야 한다. 습관으로 삼아야 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주님을 의지함을 말한다.

2. 절제, 억제하며 참는 것

정의: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어느 정도 유보하는 것, 악을 끝까지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문제, 성도들 간의 문제, 부부, 부모 사이의 문제

독단과 아집을 버려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러움을 보이는 것, 참아 주는 것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맑은 정신으로 유혹을 참아내는 것

그 이유: 주님이 오신다. 그때에는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진다.

주님께서 곧 오셔서 영원토록 바르게 처리하실 것이다.

3. 신뢰(6-7)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냥 방치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다. 신중하게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되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하는 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라. 그러려면 몇 가지가 필요하다.

1.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6)

바울은 기도의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기도, 간구, 감사

기도(pray)는 약한 존재가 강한 존재에게 부탁하는 것

그러려면 부탁의 내용이 확실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6).

A. 기도: 그냥 기도라고 하면 흠모, 헌신, 예배 등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가 생기면 따로 시간을 떼 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분을 흠모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사랑, 위엄, 존귀 등 생각,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푸실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달려가려 하지 말고 먼저 그분의 위대하심, 능력을 생각하고 흠모한다.

그런 차원에서 찬송을 부르면 좋다. 찬송 자체가 기도, 주일 예배 참석 자체가 기도

나의 기쁨

1.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맘뿐일세

2.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3.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길 못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4.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5.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B. 간구(supplication): 우리의 모든 필요와 문제를 간절하게 공유하는 것

간절하다는 의미: 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고가 아니다. 압박감 앞의 야곱

말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것

바로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함, 땀이 핏방울처럼 변함

나무뿌리를 뽑으라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

C. 감사(Thanksgiving)

아이들이 부모에게 늘 해야 하는 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에게도, 직장 상사에게도

성공의 비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으나 그중 1명만 돌아와서 감사, 사마리아 사람(눅17:11-19)

이것이 대충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의 비율, 10%, 달라고만 하지 말고 감사해야 한다.

감사의 표시: 대개 감사는 드리는 것으로 표현된다. 재물과 재능과 시간과 찬양을 드리는 것

2. 그런데 이렇게 올바르게 기도하는 일은 단 순간에 되지 않는다.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한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인생을 통해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읽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 올바르게 기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올바르게 교제를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 좋은 교회가 필요하다.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면 죽도록 쓸데없는 일로 고생한다. 밤새 철야, 입신, 기도원, 나무뿌리 뽑기

5. 바울의 기도 예: 고후12:7-10, 지금 식으로 말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됨

바울의 태도, 올바르게 생각하니 아무 문제가 없음, 왜 하나님을 아니까

6. 그래서 바르게 기도를 하면 7절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온다. 사람 생각으로는 응답이 없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화평이

쏟아져 온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공식이요, 조건이다.

행16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에 갔다가 마귀 들린 소녀 구출, 억울하게 옥살이, 기쁘지 않다.

그러나 기뻐할 때에 지진이 나고 간수 가정 구원, 빌립보 교회 세움

7. 그래서 그는 9절을 다시 이야기한다.

결론

누구나 걱정하고 염려하며 산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걱정 근심과 염려를 이기고 기쁘게 사는 비결이 있다.

성화의 필수 요소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기본 요소: 기쁨, 절제, 신뢰(기도)

핵심은 바르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사를 바르게 생각하며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

13 만족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비밀

성경말씀: 빌4:10-13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바울의 기쁨(4, 16), 빌립보서 안에는 적어도 16번이나 기뻐하라는 말이 나온다. 왜?

기뻐할 상황인가? 아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오늘은 그 이유를 살펴보려 한다. <만족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비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상황의 지배를 받는 사람, 상황에 상관없이 리드하고 나가는 사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것을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로 표현하였다. 온도계, 온도 조절계
사도 바울은 온도 조절계, 그가 가면 언제나 리더가 된다. 상황에 관계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지속하였다.
그는 상황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이기는 승리자였다.

그리스도인의 만족(11)

나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다(11).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13).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18). 우리는 이것을 만족(contentment)이라고 부른다.

현대인들의 문제: 만족이 없다. 가장 처음 만족하지 않는 존재, 마귀(겔28:12-15, 사14:12-15)
아담과 이브의 문제(창3:1-5),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시험: 불만족, 하나님 원망

이유: 교만, 나를 나 이상으로 높이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 만족과 감사가 상황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과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면 신뢰하는 데서 이루어진다(6-7, 13).

우리가 말하는 만족의 정의: 1. 자기만족이 아니다. 자기만족에 빠지면 남을 배려하지 않고 감사를 모른다.

2. 갈등과 싸움이 없는 만족이 아니다. 싸우고 갈등하면서도 주님을 신뢰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화평, 이것이 만족이다(7). 바울을 보고 배울 때 얻게 된다(9).

바울의 고백(11)

나는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11).

먼저 설명 고후11:23-28, 12:7-11

배우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즉 그는 구원받자마자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체험을 통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다. 약 30년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아 알지어다(벧전2:3). 날이 가면서 배우워야 한다.

‘만족하다’, ‘안에 포함되어 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을 묘사하는 말
‘스스로 충분하다’, 과거에 금욕주의를 실천하던 스토아 학파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

그런데 우리의 민족은 우리 자신으로 인해(금욕과 고행, 절제 등) 이루어지지 않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13). 이것이 바울의 고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게 된다.

하나님의 섭리(10)

바울은 주님을 크게 기뻐하였다. 왜? 옥에 갇혀 있다. 사실 교제가 필요하고 사랑의 선물이 필요하다. 로마 교회는 바울로 인해 내분(빌1:13-18)

그런데 놀랍게도 뜻밖에도 1000킬로미터나 떨어진 빌립보에서 성도들이 사랑의 선물을 보냄(10)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

기적: 자연 세계의 법칙을 깨드리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홍해,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섭리: providence, pro 미리 vidence, (video)보다, 즉 하나님이 미리 보고 준비해 주시는 것
왜 성경을 읽는가?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

모세를 보라. 이집트의 왕자, 자기 힘으로 구원 이루려고 함, 사람을 죽임, 탄로 나서 미디안 땅으로
쫓겨나서 40년간 양치며 똥 치우는 생활, 아무 소망이 없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심

다니엘을 보라. 어린 나이에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감, 수모를 겪으면서도 왕 중의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선포,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 기록, 하나님의 섭리
 지금 우리가 여기 사랑침례교회에 와 있는 것, 오기 전에 믿음 생활하며 고생하던 것
 나는 승리침례교회 하다가 패배함, 죽고 싶은 심정, 그것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성경 교정 열심히 한다. 이단성 시비,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계기
 대한민국을 보라. 법치가 무너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재인 대통령 2년, 말 그대로 모든 분야에서
 죽을 썩고 있다. 좌익 독버섯들이 들고 일어난다. 그들의 모든 위선이 다 드러난다.
 그 결과 나라를 사랑하는 지식인들이 국민 계몽, 이제 드디어 좌익들을 몰아내고 정상적인 국가를 세울
 수 있다. 자유 통일 할 수 있다. 2-3년 저에는 암울했다. 하나님의 섭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면 주님 오실 때까지 좋은 나라 유지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는 롬8:28을 믿는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라.”
 아브라함, 모세, 다윗, 히스기야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 바울에게 이루어진 섭리
 내 것으로 알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의 인생은 아무 계획 없이 일이 생기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섭리로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적의 나라, 섭리로 지켜주신다. 자유 통일 이룬다.

하나님의 권능(11-13)

바울은 선물을 받아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11).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어디서나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11)
 구체적으로(12), 12절의 배웠다는 말은 instruct, 비밀을 배웠다는 말이다. 비결을..훈련/지시받았다
 가난하게도 살고 부자로도 살 수 있다(고후11 장일 보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적: 가난과 부요함, 부요함이 더 어렵다. 부자가 돼서 주님을 따르기는 심히
 어렵다(솔로몬을 보라). 그런데 바울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것이 진정한 만족이다. 목사의 바람: 우리 성도들이 이왕이면 부요한 데 처하기를 원한다. 재물을
 많이 벌여 잘 다스리는 좋은 성도들이 되기 원한다.

바울의 최종 결론(13),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힘의 주체는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성령님

현대역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변영 복음 레퍼토리
 아니다. 주시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무를 보라. 참 잎이 우거지고 꽃이 피고 아름답다. 우리 학교의 목련, 벚꽃
 자 그런데 나무의 아름다움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시련이 올 때에 버티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뿌리에 있다. 땅 속에는 위로 드러난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간 뿌리가 있다. 심지어 바위까지도 파고 들어간다.

왜 물을 얻으려고. 그러므로 그 나무의 아름다움, 버티는 힘은 뿌리이다. 안 보인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뿌리이다.

우리의 아름다움, 열매, 사역의 원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버티는 힘의 원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요15장을 보라(15:1-5).

결론

우리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가 되어야 한다. 상황을 지배하는 사람

만족하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

만족하려면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라.

그리고 4:6-7을 믿고 신뢰하라.

14 목사와 고난(삶)을 나누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성경말씀: 빌4:14-23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바울의 기쁨(4, 16), 빌립보서 안에는 적어도 16번이나 기뻐하라는 말이 나온다.

왜? 그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만족의 비결: 1. 하나님의 섭리(10),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선물, 2. 하나님의 파워(13)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성도들에게 감사를 보낸다. <목사와 고난을 나누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고난을 나누었다(14).

나누었다(1). communicate, 함께 교통하였다(15-16).

고난을 나누었다: 지금 옥에 갇혀 있다. 빌립보 성도들의 선물, 고난을 나눈 것이다.

바울의 말: 잘하였다(14). 결코 돈 보내 줘서 고맙다는 것이 아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다(18).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였으므로 잘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목사에게 잘하라고 하는 말처럼 들릴까 봐 조심스럽다. 그러나 성경을 그대로 강해한다.

좋은 목사 좋은 성도의 관계,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보시고 복을 주시는지 말하려 한다.

10절에서 그는 그들의 돌봄에 대해 언급함, 이것이 다시 활기를 띄었다.

이것은 겨울이 지나고 봄에 꽃이 다시 피를 뜻한다.

이것은 투자와 비슷하다(14-17), 투자하면 열매가 생긴다(17).

성도들이 사역자를 돌본 것은 투자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것은 희생이다(18). 영적 희생물이 있다(롬12:1-2; 히13:15).

먼저 희생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픈 것이다. 헌금하고 시간 내서 봉사하는 것은 아픈 것이다.

그 아픔이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다(18)

실제로 성도들의 선한 행위는 주님께 드리는 희생물이다(히13:16).

희생물은 제사장이 바친다. 그러므로 빌립보 성도들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일을 위해 희생물을 드림 (벧전2:5)

말1:6-8,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 백성들의 해이한 정신 상태, 하나님을 값싼 존재로 여기지 말라.

바울은 이것을 단순히 빌립보 성도들의 헌물로 보지 않았다.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보았다(19).

“너희가 나의 필요를 채워 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의 한 가지 필요 만족,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필요 만족, 너희는 가난함 속에서 내 필요 만족,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모든 필요 만족”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희생할 때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다. 그러나 필요를 채워주신다.

목사와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관계

지난주 홍문중 의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연설, 국가 현황이 아니라 교회가 가야 할 길 외침

젊었을 때 미국 리버티 대학(Fundamental Baptist College)의 제리 팔웰 목사 의정부 방문, 아마다

통역, 그 뒤 초청을 받아 목사가 되기 위해 1년 동안 그 대학과 그 대학의 Thomas Road 침례교회를 다님, 뜻밖에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연설을 함, 연설의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1. 나는 장로교인이지만 미국식 침례교가 한국 기독교의 살 길이다. 침례교회가 장로교/감리교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

2. 나도 리버티 대학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썼다. 그들은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

3.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성경대로 믿고 살아라 등.

왜 그분이 이런 연설을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른다. 참으로 주님은 묘한 분이시다.

그분의 주장: 21세기 한국 교회가 살려면 미국식 근본주의 침례교회를 해야 한다.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리버티 대학의 제리 팔웰 목사(Jerry Falwell, 1933-2007) (*)

1955년, 22살에 Thomas Road Baptist church 설립(35명), 버지니아 주 린치버그의 메가 처치, 현재 24000명, (*)

1967년 린치버그 크리스천 아카데미, 1971, 리버티 대학, 세계에서 가장 큰 크리스천 대학, 15000 명(on campus), 94000명(off campus), (*)

그는 그 당시 미인가 학교인 미조리 주 스프링필드에 있는 성서침례신학교 졸업
강력한 보수 우파 목사, 킹제임스 성경 사용, 나중에 남침례교로 가면서 근본주의 약화
레이건 대통령 등에게 큰 영향을 미침(*), 가는 곳마다 부흥회, 애국 운동(*)

저기에는 유명한 교수 대학원장이 있었다. Harold Wilmington(*)

Wilmington's guide to the Bible(1248쪽, 스트롱 콩코던스 1968쪽)

Elmer Towns, 공동 설립자, 수많은 책들

그의 아들이 운영한다. 여전히 트럼프 등 초청해서 강연(2017년 5월 13일 졸업식, 보수 우파 (*) (*)

미국의 정상적 침례교회에는 좌파 리버럴이 없다. 기독교 대학과 교회가 바른 가치 위해 연설
우리나라에는 박영선 목사님, 정수영 목사님 등이 다녔다.

한 사람의 목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처럼 목사 한 사람으로 부족하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삶을 나누는 동료 협력자들이 필요하다.

목사들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어야 한다. 갈6:6

내 경우는 바울처럼 자비량 선교/목회: 이것은 바울이나 나처럼 특별한 경우

바울은 분명하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복음의 열매를 먹어야 한다고 말함(고전9:13-14)
로마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모금(롬15:25-27)

그러므로 교회가 목사들을 합당하게 대우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경우를 보면 목사가 자기의 생활비를 교회에 의존하지 않으면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사람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 한 사람의 목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바꾼다.

그 목사를 위해 주변의 성도들이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신다. 단순히 목회자를 도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운 것이다.
엘리아의 사역, 아합과의 싸움, 앞으로 비가 오지않을 것이다. 왕상(17:1), 그릇 시냇가, 까마귀, 시냇물
결국 시돈의 사르밧으로 피신함, 거기서 사르밧 과부를 만남. 요청함(10-11).

과부의 말(12), 엘리아(13), 이것 대단히 힘든 것, 약속(14), 성취(15-16)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 헌금을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5월의 미디어 선교 헌금

그런데 헌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일이 진척될 뿐만 아니라 영적 육적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회계 장부에 기록된다(17).

빌립보서 총정리

모든 교회에는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 모든 문제가 망므과
생각에서 생긴다.

1.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린다.
2. 그리고 규칙적으로 성경 읽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한다.
3. 하나님께 단일한 마음과 생각을 달라고 기도한다(그리스도의 생각 2장).
4. 하루 종일 살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예의주시한다.
5.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억한다(빌4:8)
6. 만족하고 사는 것을 기억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약속
8. 빌4:5-7, 9. 목사와 성도가 삶을 나누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